

심을 흔들고 있다.

이번 광고를 기획한 대흥기획 한유석 국장은 '스킨핏이라는 제품 명처럼 피부와 하나된 듯한 착용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파운데이션을 피부에 직접 바른 느낌과 아이디어를 연결했다. 전반부에서는 이미 화장품 광고모델로도 활약중인 김이중이 화장품 광고를 연상케 하고, 후반부에서 라제리 광고로 반전시킴으로써 피부에 바른 듯 착용감이 좋은 브라'라는 컨셉트를 효과적으로 어필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새광고] 신한금융그룹, LG카드를 신한가족으로 맞이합니다



고급스러운 사교 모임에 참석하는 이영애. 첫 참석인지 모임에 쉽게 동참하지 못하는 그녀를 위해 자리에 있던 VIP 멤버들이 환한 웃음과 반가움으로 환대한다. LG카드를 신한가족으로 맞이합니다'라는 카피 뒤로 이어지는 이영애의 멘트 "금융 잘하는 곳으로 찾아왔어요. 나의 금융 브랜드는 신한입니다."

최근 LG카드를 계열사로 맞이한 신한금융그룹이 새로운 기업 이미지 광고에 LG카드의 전속모델이었던 이영애씨를 앞세워 화제가 되고 있다. 회사측은 "LG카드를 한가족으로 따듯이 맞이하겠다는 포용의 의미를 담고 있다"며 "더불어 이영애씨의 깔끔한 이미지가 금융회사로서의 신뢰감을 한층 강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새광고] LG카드, 기대하세요

LG카드가 신한금융그룹과의 첫 만남을 그린 새광고 '기대하세요'편을 선보인다. 김주혁과 수애를 모델로 기용한 LG카드의 이번 새광고는 LG카드와 신한금융과의 만남을 물과 물이 만나 거대한 물줄기를 이루는 폭포'에 비유하여 더욱 큰 혜택과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겠다는 기업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LG카드 관계자는 '작년 한 해 천만인의 카드 캠페인을 통해 리딩카드사로서의 규모감을 보여주고 소비자로부터 신뢰감을 쌓아왔다'며 "2007년에는 이번 광고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광고캠페인을



전개하면서 신한금융그룹의 가족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모습을 부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새광고] 대우캐피탈, 내게론 돈 이야기



대우캐피탈의 신용대출상품 '내게론' (Naeg-eon)을 알리는 신

규 광고, 돈 이야기'편이 선보인다. 이번 광고는 수많은 대출 관련 광고 홍수 속에서 '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로써 대우캐피탈을 인식시키기 위해 '돈 이야기는 대우캐피탈에서 합시다!'란 테마로 진행되었다.

대우캐피탈의 김효성 팀장은 '자동차 할부 중심 사업에서 새롭게 신용대출상품 내게론을 출시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위해 대우캐피탈 창사 이래 처음으로 TV광고를 전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새광고] KB국민은행, 이승엽 배팅



비보이, 김연아 등 차별화된 모델 전략으로 대한민국 1등을 넘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KB국민은행이 이번에는 국민타자 이승엽을 모델로 새로운 CF를 선보였다. 이번 CF는 방송과 신문에서 비춰졌던 화려하고 말쑥한 스타 이승엽이 아니라 땀으로 젖은 연습장의 야구선수 이승엽의 모습을 모노톤의 다큐 형식으로 담아 생생한 감동을 전해준다.

이번 편이 메인 메시지는 '야구도 은행도 대한민국 1등이라면 보여줄 것이 있다'는 것. 오리콤 임정욱 차장은 "대한민국 1등을 넘어 세계로 진출하기 위한 KB국민은행의 노력을 이승엽 선수의 고된 연습 장면을 통해 새롭게 전하려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새광고] 남양유업, 17차



남양유업의 17차 새광고에서 전지현은 봄바람에 흔들리는 봄의 여신'처럼 늘씬한 각선미를 드러내며 과감하고 몽환적인 매력을 발산했다. 이번 광고를 제작한 스태프들도 이구동성으로 "대부분의 그림이 완벽해서 15초 광고로 어떻게 잘라야 할지 고민이 컸다"며 행복한 고민을 했다는 후문이다. 새로운 17차 캠페인은 광고 포털 사이트에서 주간 인기광고 베스트10에 꼽히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새광고] 현대차, 투싼



섹시스타 이효리를 등장시킨 투싼의 새광고가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이효리가 최근 출연한 뮤직 드라마 사랑한다면 이 들처럼'을 색다르게 해석해 새로운 캐릭터와 스토리라인의 투싼 광고로 재탄생 시킨 것. 그동안 현대자동차 투싼은 젊은 남녀 간의 미묘한 감정과 흔들림을 모험, 위험, 실험'이라는 삼색의 주제로 표현한 트렌디 광고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아왔다.